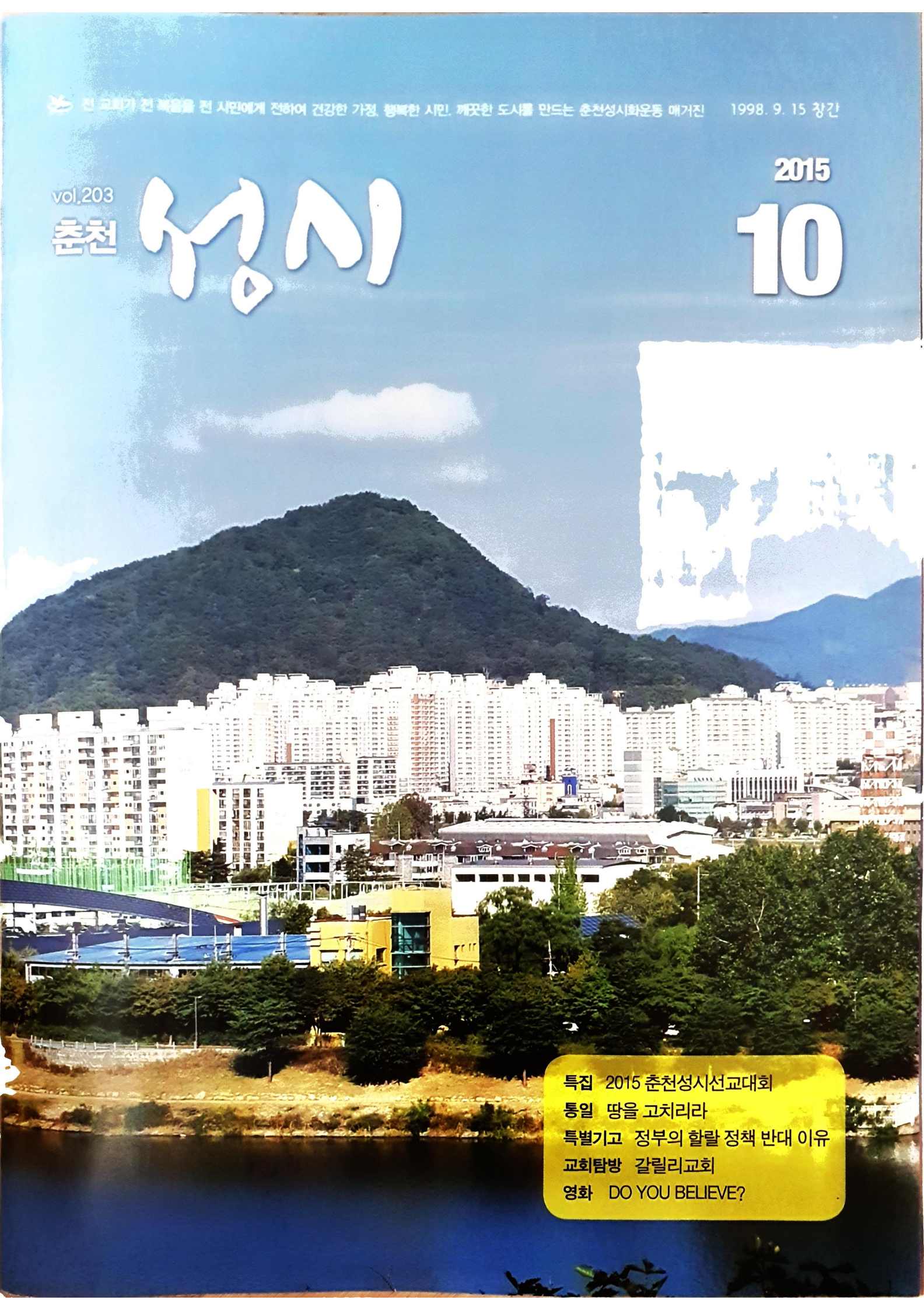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1998. 9. 15 창간

vol.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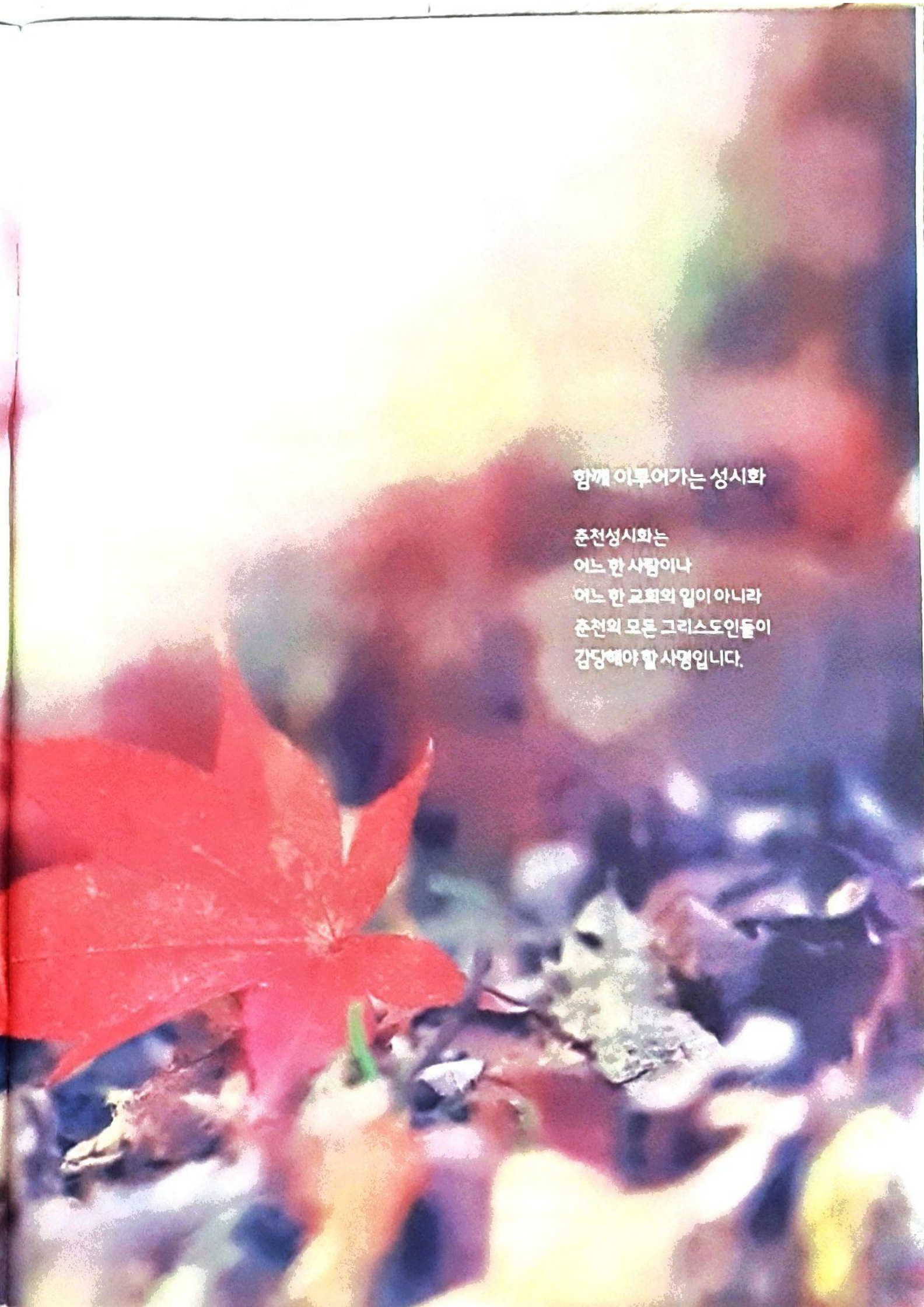
춘천 성시

20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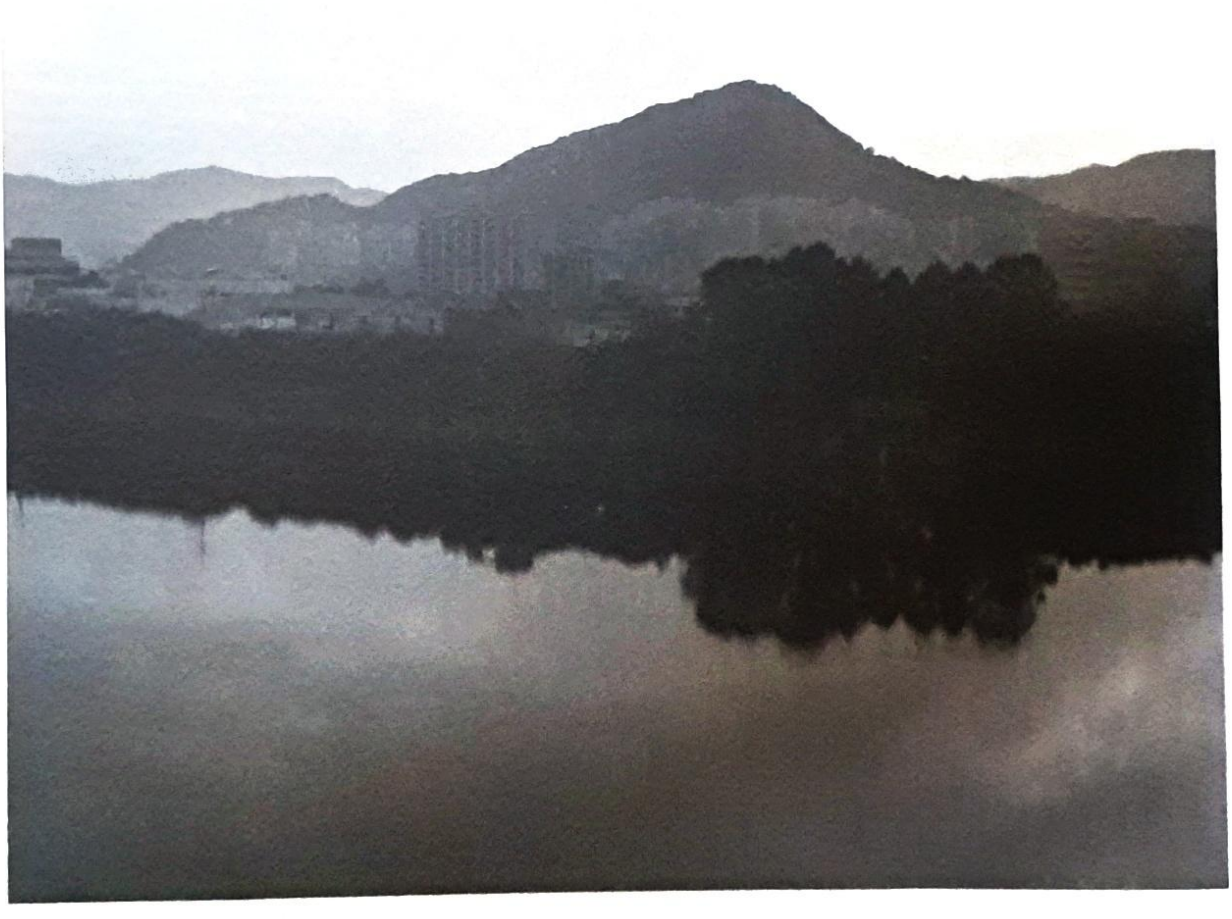
특집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통일 땅을 고치리라
특별기고 정부의 할랄 정책 반대 이유
교회탐방 갈릴리교회
영화 DO YOU BELIEVE?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2015 성시선교대회가 열리는 주의 동산, 춘천

Editor's Letter

문화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삶을 영위하는 형식이라고 말한다면, 성시화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졌던 기독교인의 삶의 형식들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다. 인간에게 문화적 능력과 구조를 부여하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향유하게 하신다. 물론 인간이 기본적 필요의 충족으로도 삶을 영위해 나갈 수는 있지만, 문화가 빈약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정서가 메마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삶에 대한 감사 속에는 문화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다.

춘천 땅에 기독교 문화를 심으려면 한 두 사람, 한 두 교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문화는 공동체 단위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10월 첫 주는 오래전부터 성시주간으로 정하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춘천의 많은 교회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성시화의 길이 가깝고도 먼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몇 년 전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의 초청으로 부산성시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우리를 초청하였지만, 오히려 우리는 늦게 불붙은 성시화 운동이 부산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고 하셨는가? 부산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성시화 운동을 일으킬만한 기반이 잘 닦여져 있었다. 대형교회와 중진 목사님들이 스폰서가 되어주고, 한참 뛸 수 있는 40,50대 분들은 실무적인 일을 맡아 발 벗고 나서게 되면서 부산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성시화 운동은 춘천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고 가야할 사명이다. 소수 몇몇 교회들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올해에는 성시화 운동으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세우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편집장 최영조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10
vol.203

003 에디터 레터

006 캘린더
9월 소식을 한눈에

008 사설
춘천성시선교대회를 킹덤패밀리 축제로!

010 춘천성시선교대회 소개

016 칼럼
'성시주간'을 지킵시다!

017 통일
땅을 고치리라

020 특별기고
정부의 할랄 정책 반대이유

025 예향/만평

026 예수안에서본 예술

028 교회탐방
갈릴리교회

032 인물
베드로병원을 오픈하면서

035 시
산

036 건강이야기
지나친 걱정과 근심

038 예수미소 62
순서를 알면 주변이 깨끗해진다(1)

040 영화이야기 100
두 유 빌리브?

042 알려드려요

044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046 9월이야기

048 음악이야기
E. 사티

052 후원자 명단

10
2015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 이달의 기도제목

· 춘천성시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주 만이 다스리시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춘천의 온 교회 성도 모든 세대에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춘천성시선교대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춘천, 대한민국과 한반도,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이 기름준비하며 깨어나게 하소서.

춘천성시선교대회 성시주간 (10월 4일 ~ 10월 10일)

SUNDAY	MONDAY	TUESDAY
4 [춘천성시선교대회] · 저녁집회 1 시간 : 저녁 7시 30분 강사 : 이동현목사 장소 : 안디옥교회	**5** [춘천성시선교대회] · 전도요원훈련 및 실행 (오전 10시, 오후 2시) · 저녁집회 2 시간 : 저녁 7시 30분 강사 : 다니엘김선교사 장소 : 안디옥교회 [IVF] ~9일 세계학생기도주간	**6** [춘천성시선교대회] · 성시포럼 시간 : 오전 2시 · 저녁집회 3 시간 : 저녁 7시 30분 강사 : 김용의선교사 장소 : 안디옥교회 [어린이전도협회] ~11.24 새소식반강습회
11	**12** [46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IVF] ~15일 전국간사수련회 성주하늘목장	**13**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18 [CCC] 간사교육수련회	**19** [JDM] ~24일 개척수련회 JDM 훈련센터	**20**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25	**26**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7**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임 저녁 7시, 동부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예수전도단] ~12.8 귀납적성경연구과정 목,금 소양제일교회	**2** [성시본부] 이사회 오전 7시, 안디옥교회	**3** 개천절 [JDM] 개척 38주년 감사축전 JDM훈련센터
7 [춘천성시선교대회] · 영화상영 시간 : 오전 10시, 오후 2시 · 통일토크콘서트 시간 : 오후 7시 30분 [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갈릴리교회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IVF회관	**8** [춘천성시선교대회] · 이사장배축구, 족구대회	**9** 한글날 [춘천성시선교대회] · 어린이 꽃 잔치 시간 : 오후 2시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블레싱춘천 시간 : 저녁 7시 30분 장소 : 안디옥교회	**10** [춘천성시선교대회] · 홀리바이크 평화대행진 시간 : 오전 9시 장소 : 송암동 물레길 카누 선착장 주차장 [두란노어머니학교 개강] 온누리교회
14	**15**	**16**	**17** [예스컴] 저녁 6시 예스컴프레이즈 춘천중앙성결교회, 드림홀 [하늘소리] 오후 4시 후평동 하늘소리선교센터
21 [IVF] ~23일 강원간사연합 신학캠프 춘천 IVF 회관	**22**	**23**	**24**
28	**29**	**30**	**31** [춘천연합찬양축제] 저녁 6시, 춘천문화예술회관 [CCC] 여호수아 기도회 GCTC수료식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를 킹덤 패밀리 축제로 !

Kingdom Family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다른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진다. 이런 대이동으로 인해서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치자면 엄청난 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한자리에 모이길 힘쓴다. 왜 그런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고향으로 향한다. 분주한 사회생활로 인해 평소에는 가까이서 지내기 어려웠던 가족들이 일 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열일을 제쳐 모인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마음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가족에게는 애증이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전보다는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는 가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외숙모 등 다양한 호칭들은 가족들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해 준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면 그간의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진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풍성한 음식과 나눔 속에서 가족끼리만 나누는 애환을 담은 잔치가 펼쳐지고 또 아쉽게 헤어지며 다음을 기약한다. 가족 안에서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 형제우애 등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많은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 있긴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 가족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또 모이는가 보다. 고아들은 늘 혼자라고 여겨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족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싸운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혹여나 진리 때문에 싸우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아플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각각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분열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서로를 만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시요, 주님의 교회도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주님은 교회가 획일화되길 원하시지 않는다. 가족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된 가족이 되길 원하신다.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가족임(Kingdom Family)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듯이 주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돌아온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만약 열방의 가족이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권위를 교회는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갖고 일할 때도 엄청난 결과를 드러냈다면 만약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주님은 연합하게 하시며,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다. 교회가 연합하면 새로운 차원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고아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아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늘 자신만을 생각한다. 자기 사역에만 집착한다.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고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한 교회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것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잘 하도록 돕는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 춘천 성시선교대회가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가족됨을 나누고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

글 이병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43주년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일시 2015. 10. 4(주일) – 10(토요일)

장소 안디옥교회

춘천성시선교대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천국 잔치이자 축제입니다.
모든 교회들과 기관,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춘천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축복하는 선교대회입니다.
더 나아가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 남북교류 및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공유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춘천의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선교대회 입니다.

· 일정표

시간	10월4일(주일)	10월5일(월)	10월6일(화)	10월7일(수)	10월8일(목)	10월9일(금)	10월10(토)
오전	헌혈행사 (10일까지) 시청앞 헌혈의 집	[전도요원 훈련] 10시 강사 **김철영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영화상영1] 10시 **"신은 죽지 않았다"**	[성시이사장배 축구 · 족구 대회]		[춘천올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 9시
오후		[전도 실행] 2시	[성시포럼] 2시 **"춘천성시화의 현재와 미래"**	[영화상영2] 2시 **"신은 죽지 않았다"**	[성시이사장배 축구 · 족구 대회]	[어린이꽃잔치] 1시–4시	
저녁	[집회1] 7시30분 강사 **이동현목사** (광주평화교회)	[집회2] 7시30분 강사 **다니엘김선교사** (JGM)	[집회3] 7시30분 강사 **김용의선교사** (순회선교단)	[광복70주년 통일토크콘서트] 7시30분 정요한바이올리니스트 김예나피아니스트		[블레싱춘천] 7시30분 강사 **이원호목사** (소양성결교회)	

10월 4일 주일

· **집회 1**

저녁 7시30분
안디옥교회 본당



강사 **이동현 목사**
광주평화교회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저녁집회는 도시의 성시화를 비전으로 삼고 앞장서는 광주평화교회 이동현 목사의 은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법대를 다니던 엘리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앞에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대형교회가 즐비하던 한국기독교의 현실앞에 안타까움을 느껴 지방 소도시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여 지방으로 향한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불모지와 같은 땅!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확하게 그곳을 선택하게 하셨고, 이 목사 부부는 오직 말씀에 순종해 경기도 광주 역말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 시작은 미약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없는 귀한 동역자로 성도들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사역하며 교회는 날로 부흥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평화교회는 현재 6천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었다. 개척당시 교인들은 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며 모든 교회 일에 앞장서는 이동현 목사의 든든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평화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도시의 성시화를 비전으로 삼고 앞장서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축제하는 교회로 유명한 평화교회는 '아줌마축제'와 '어린이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지역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평화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평화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월요일

· **전도요원 훈련**
오전 10시

· **전도 실행**
오후 2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도래하기를 꿈꾸는 전도요원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철영목사님은 고 김준곤목사님의 제자로 성시화의 비전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승하고 있는 분입니다. 탁월한 강의를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고, 현장 실행을 통해 춘천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오전에는 전도를 위한 영성 집회와 사영리 전도 방법을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 **강 사 : 김철영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사 회 : 홍요셉목사** (사랑의침례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도분과위원장)

· 집회 2
저녁 7시30분
안디옥교회 본당



강사 다니엘김 선교사
(JGM)

춘천성시선교대회의 두번째 저녁집회는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 복음의 불모지를 전방위로 다니며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긴급히 돌아오라"라고 촉구하는 급진적 예수 선교사다. 십대 시절 5년 동안 일본에서 매주 길거리 전도를 했고,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 받겠다며 서양인도 버겁다는 미군 육군사관학교에 '나홀로' 입학, 4학년 때 전교생의 신앙을 지도하는 종교대장까지 된 철인 전도자다.

그의 설교 간증 동영상들은 유투브에서 도합 수십 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이라는 다국적 성장 과정에서 얻은 국제 경험과 언어능력을 기반 삼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자 뜨겁게 호소하는 열정의 설교자이다. 그는 1977년에 외가의 4대째 믿음을 상속받고 태어나 열 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재일교포 2세인 아버지의 고향 일본으로 건너가 17개국 학생들이 모여 영어로 공부하는 후쿠오카 국제학교를 다녔다. 이후 도미해 남부 찰스턴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육사 졸업 즉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다. 2006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며, 2007년 2월,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한 지역에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1년 365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선교사 모집, 훈련, 동원'을 기반으로 하는 복음 유통사역에 힘쓰고 있다. 집회를 통해 춘천의 다음세대들이 복음을 알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 성시포럼
오후 2시

성시포럼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이어온 춘천성시화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향후 춘천이 어떻게 성시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세대 계승이 중요한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장년 세대들과 소통하며 전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춘천성시화를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춘천성시화의 발전을 위해 누구나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발 제 : 최상도목사 (춘천성시본부 평화도시분과위원장)
· 토론자 : 김영명장로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 (춘천성시본부 부본부장)
김마태전도사 (어린이전도협회)
길선희목사 (예스컴대표)
· 사 회 : 이병철목사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 집회 3

저녁 7시30분
안디옥교회 본당



강사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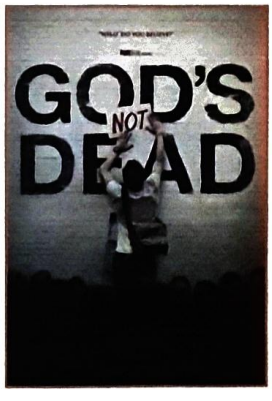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세번째 저녁집회는 열방 곳곳을 다니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의 선교사와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복음 전파자이자 선교 동원가로 열방을 다니며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김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선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각종 집회에서 모시기 원하는 '스타 강사'다. 그런 그의 스펙은 형편없다. 공식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 그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재수 없는' 집안의 '망할 놈의' 아이였다. 부친은 술장사를 하다 단명했고, 형님은 동두천 기지촌을 헤매다 요절했다. 소망이라곤 전혀 없는 삶을 살던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20세에 그분을 만난 이후 김 선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어도 삶의 우여곡절, 희로애락은 이어졌다. 그러나 선하신 그분은 '재수 없는 집안의 망할 놈의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분과의 무수한 '일들'을 통해 김 선교사는 우상향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됐고 결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주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독히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겼는데 정말 불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내 환경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 주세요"라는 고백을 했다. 비참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였다. 그렇다면 그 불행한 환경은 최고의 주님을 만나게 해 준 다시없는 기회의 여건이었다는 깨달았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딱 한가지만 빼놓고 다 있었습니다. 땅을 찾았고 잘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없었습니다.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복음을 피해가면 지금 나 혼자는 밥 잘 먹고, 인생을 그럭저럭 지낼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충분함'과 '완전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됩니다.

10월 7일 수요일

· 영화상영

오전 10시
오후 2시
안디옥교회 본당



춘천성시 매거진 192호 영화이야기 코너에도 소개 되었던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수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한 젊은 대학생의 도전과 고군분투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신앙영화이다. 깊어가는 가을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하여 소중한 묵상과 사색의 계절을 보내도 좋을 것 같다.

· 광복70주년
통일토크콘서트
저녁 7시30분
안디옥교회 본당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나 피아니스트

성시대회 넷째날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탈북자인 정요한집사 공연 및 간증 집회로 통일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4세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평양음악대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했고 차이콥스키 콩쿠르, 비에냐프스키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후 북한에 돌아가 국립교향악단에서 연주하며 작곡과 창작을 지도했고 '김정일 전용악단 악장 겸 단장'으로 8년간 일했다. 당에서 인정을 받고 남부러울 것 없이 생활하던 그는 2007년 동유럽 대학의 교환교수로 근무하게 됐다.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은 그때였다. 한 모임에서 외국인 교수가 안색이 안 좋은 그를 보더니 "걱정이 있어요? 교회에 가 보지 그래요"라는 말을 건넸다. 예전 같으면 그냥 흘러들었을 그 말이 그날따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에게는 오랜 기간 마음속 깊이 숨겨 왔던 비밀이 있었다. "제 할아버지는 원래 장로셨어요. 어릴 때 저를 안고 늘 기도해 주시곤 했지요. 기독교를 믿으면 잡아가는 북한사회에서 말이죠. 우리 집안이 바로 예수쟁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근 교회로 갔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는 은은하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기도 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이 아니면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했고, 2009년 대한민국에 왔다.

"남한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탈북 동기에 대해 묻더군요. 가만히 보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정말 기독교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지 자꾸 물었습니다. 결국 종교적인 이유의 탈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저는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탈북 동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분단도의 수부도시로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더 나아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 성시이사장배
축구 족구대회
오전 9시 부터
오후 2시 까지

포이맨(춘천목회자 축구선교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춘천성시이사장배 축구, 족구대회는 춘천 공지천 인조잔디축구구장 및 족구구장에서 있습니다.

대회 진행은 오전 11시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사회 장춘근목사(남산감리교회), 기도 김상훈집사, 설교 김창환목사(성시본부 이사장), 축사 김영일의원(시의회의장), 축도 고영일 목사(푸른교회) 입니다.

축구대회 참가팀은 총 6개팀 대동(버스기사연합), 택시(택시기사연합), 교회축구연합회, JDM 선교간사연합팀, 학원기사연합회, 포이맨 입니다.

족구 대회 참가팀은 총 4개팀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 어린이꽃잔치

오후 1시 – 4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어린이전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놀라운 이야기, 즐거운 한마당, CBS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복화술, 비보이팀의 공연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에게는 선물도 제공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레싱춘천

저녁 7시 30분
안디옥교회 본당



강사 이원호 목사
소양성결교회

춘천의 전 교회 전 성도 전 세대, 기관과 선교단체가 축복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금요철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과 가정, 모든 교회와 성도, 모든 세대, 춘천과 대한민국, 한반도와 주변국가들, 열방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에 부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영이 임하사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을 꿈을 꾸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 사명을 회복하며 소명을 부여잡고 다시 주와 함께 꿈꾸며 일어서는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각 기관과 선교단체들을 소개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그밖에 성시시민상 시상식 및 이사장배 축구.족구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 춘천홀리바이크 평화통일 대행진

오전 9시
송암 물레길
카누 선착장 주차장

춘천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도시이다. 이에 자전거를 통한 시민참여를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춘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레고 랜드가 운영된 이후 외지방문자들이 춘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타기 및 춘천 자전거 도시 정체성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 남북평화통일인 것을 다짐하며 자전거타기를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 됨을 이루고자 춘천 홀리 바이크 활동을 시작한다. 제1회 홀리 바이크 평화통일 대행진은 앞으로 계속되는 다양한 자전거 타기 및 자전거 대회로 이어질 것이며 해피(Happy) 춘천, 스마일(Smile) 춘천, 헬스(Health) 춘천을 통해 지역 풀뿌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홀리 바이크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평화통일 자전거타기 2) 북한 이탈주민 돕기 3) 지역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4) 건강하고 웃음 짓는 행복한 춘천을 만들기에 앞장선다.

"춘천성시화운동 2015선교대회" 온 교회가 참여하고, '성시주간'을 지킵시다!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만 43년의 세월이 지나고 44년을 맞이한 지금, **춘천성시화운동 최초 선교대회**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며, 2015선교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기대해 본다.

"제1회 춘천성시화선교대회"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96.9.12)을 축하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범(96.9.19)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시화주간' [(96.9.30(월)~10.6(주일)]을 선포하고,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주일동안 기독교기관장 등 성시지도자들이 매일 교회순방 새벽기도회에 출석하여 선교대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성시토론회, 성시연합집회, 총력 전도대회, 금요연합기도회, 음악과 강연, 성시연합예배 순서로 '성시화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로 '성시화주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춘천에 년 중 집회가 많고 시기가 겹치게 되는 등의 불편을 이유로 "성시화선교대회"도 당초 정하여 선포한 성시화주간과는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2015년 춘천성시선교대회"는 예년과 달리 그 동안 성시목회자이사회에서 매월 기도모임을 갖고 기획, 준비하였는데,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10월 첫 번째 주간을 '성시주간'으로 정하고 일정(10.4~10.10)을 잡은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성시주간 행사에 춘천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다.

물론 주된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관심과 필요성 위주로 계획할 수밖에 없고, 각 영역별 전문 강사 섭외와 초청에도 한계성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기독교가 연합하는 대의명분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혹시나 교단 교회의 사정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연합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2015춘천성시선교대회" 주간행사를 위한 중보기도 및 '성시주간' 마지막 날(주일)에는 "성시헌금"을 함으로, 성시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감히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회가 잘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춘천의 온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글 김영명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5차 춘천모임 강의를 정리한 글입니다.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3~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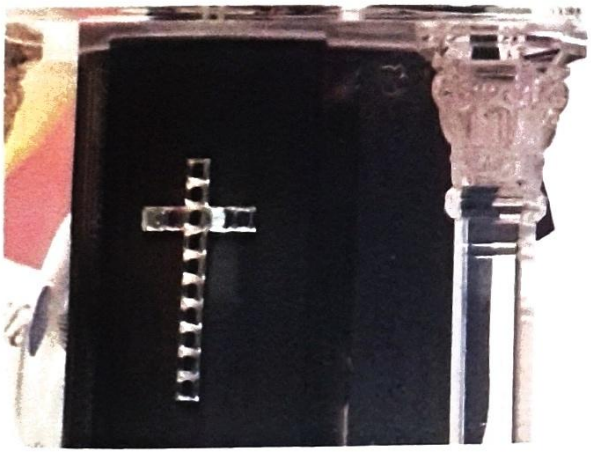
이 규목사 (신촌아름다운교회)

본인은 청년들과 2011년부터 국토기도대장정을 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와 전라도 여수를 시작점으로 하여 임진각까지 23일간 한반도를 가나안 땅이라 생각하며 기도대장정을 한다. 해운대에서는 신사참배 거부했던 노회 장소인 해운대 교회 정문 앞에서 출발하며 다시는 신앙정절을 잃지 말자!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말자! 힘의 논리와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자! 이 시대 물질주의와 자아숭배의식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이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자!라고 하며 출발한다. 여수에서는 손양원목사님의 순교지에서 출발한다. 실천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주며 제2의 손양원으로 살아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를 사랑으로 이겨내자!라는 기도대장정으로 올해까지 4번째 걸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이슈는 통일한국이다. 통일한국이 준비되면 부흥한국이 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제대로 되면 선교한국을 이룰 것이다.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는 통일의 문제이다.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며 한국교회는 회개하며 다시 일어날 것이고, 통일 되었을 때 선교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이런 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통일 운동을 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이 세 가지의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 안보는 북한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볼 것인가, 버릇을 고쳐서 탄탄한 안보를 갖출 것인가인데, 요즈음 젊은이들 90%이상이 김정은정권은 이해하지 못할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경제는 첨예한 부분이다. 경제를 대기업 사주에게 주는가, 노동자에게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통일한국과도 직결되어 있다. 남한에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할 경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내 개인의 주장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이고, 보수는 네 개인도 중요하지만 너를 둘러싼 사회의 공적인 옳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대





▲ 이규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립들로 인해 복잡한 중에 있으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선명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안보, 경제,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재배열될 수 있다고 본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몸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슈는 통일이다. 특히 다음세대는 더욱 그렇다. 청년들과 통일로 이야기 하면 쉽게 접근하게 된다. 누가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요사이 20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해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통일이 멀지 않았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인은 2004년부터 청년들을 일으키자는 마음으로 어게인1907을 준비하고, 2007년 쥬빌리와 에스더 기도운동을 같이 시작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역대하 7장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다. 본문을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4가지를 하면 3가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률적인 말씀이다.

"고칠지라"는 말씀은 땅이 병들고 망가졌다는 전제의 말씀이다. 마치 오염된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면 깨끗하게 살고 싶으나 오염된 어항에서는 알게 모르게 오염된 것을 먹고 배출하게 되고 또 먹게 되는 것 같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나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이 고쳐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휴전선이 무너져 한 땅이 되는 것도 고치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벅찬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쳐주시

기 전에 "죄를 사하고"라고 하신다. 빗나갔다는 것이다. 모두 병들어 있는 사사시대가 도래하여 평화가 깨지고 무기력하게 된 것이다. 그 전에 "듣고"가 있다. 죄를 사하시기 전에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행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낮추고, 기도하고,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첫째가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스스로라고 되어 있는 데, 수동태이다. 낮출 수밖에 없어 낮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분단70년인 올해 42년만의 가뭄이 있었다. 42년전인 1973년에는 100만명이 여의도광장에 모여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했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또, 메뚜기가 온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인 최저금리로 떨어져 경제는 최고인 것 같으나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돌아 부유한데 소출이 없는 시기이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 사스 때에도 문제없었는데, 이해 안 되는 메르스가 돌고 있고, 또 심각하지 않는 데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히브리어로 전염병은 "테베르"이다.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흘러가면 누군가는 병들고 죽는다. 모음만 바꾸면 "말씀"인 "타바르"가 되는데, 흘러가면 누군가는 살게 된다. 보이지 않는 둘 중 하나는 돌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극단이기주의 자아숭배주의 이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테베르가 돌고 있다. 테베르가 돌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으며 다 죽어간다. 2015년 지금은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병든 상황인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낮추시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바로 한국교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앞에 말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다. 낮추시는 문제 앞에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절로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기에 자신이 자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부흥의 역사를 얻으려면 은혜를 구하며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반복적인 행위와 삶을 말한다.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것에서 의식적으로 떠나기 위해 금식하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이 순종하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제46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일시 : 10월 12일(월) 오후7시15분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강사 : 현장사역자 (노숙자를 돕는 탈북청년사업자)

정부의 할랄 정책 반대 이유

이만석 (4HIM 대표)

8월 초순에 할랄식품 바로알리기 전국대책위원회와 전북기독언론인연합회가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할랄식품 단지 조성과 인증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반대에 나서자 할랄식품 클러스터 연구 용역을 맡은 몇몇 위원들 가운데 세종사이버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가 "할랄에 관련된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론을 제시하며 나섰다.

물론 자신이 용역을 맡아 연구하고 있는 할랄식품 분야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자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로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론을 위한 반론"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그가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그의 주장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방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랄 산업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슬람의 율법의 근본정신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율법의 근본정신은 "알왈아 왈바라"이다. 이 의미는 무슬림끼리는 무조건 돕고 보호하며 사랑하되 비무슬림들과는 교제를 금하며 돕거나 사랑하지 말고 철저히 증오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은 소속에 따라서 극단적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교도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라의 원수이며 증오의 대상이 된다. 즉, 알라가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알라가 증오하는 자들을 나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알라에 대한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속히 이혼하라는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율법인데, 비무슬림은 하람(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할랄(허락된 것)을 만들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슬람의 배타적 교리이며 이런 교리 때문에 유럽의 정상들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

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무슬림들을 위한 사회복지와 함께 포용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들은 비이슬람권 문화를 "파괴해야 할 무지의 문화(자힐리야)"로 간주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의 나지스(najis)교리를 알아야 한다. 나지스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다. 나지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돼지나 비무슬림처럼 물과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정결케 될 수 없는 근본적 나지스가 있고 세정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비근본적 나지스가 있다. 정결한 무슬림이 부정한 것이나 비무슬림과 접촉했다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세정의식으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가능성 때문에 세정의식을 반드시 거치고, 정결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할랄식품이 비무슬림들의 손에 접촉되었다면 하람(금지된) 식품이 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http://en.wikipedia.org/wiki/Najis)

파키스탄의 아시아 비비(Asia Bibi) 사건은 좋은 예가 된다. 2009년 6월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탄왈리(Ittanwali)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옆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인에게도 물을 떠다 주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기독교인이 주는 물은 더러워서(나지스:najis) 못 먹는다면서 땅에 쏟아 버렸다. 그러나 아시아 비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주셨는데 무함마드는 무엇을 해 주었느냐?며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무슬림 여인들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씌워 그녀를 고소했고, 파키스탄 펀잡주 법원은 2010년 11월 7일 그녀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석방운동을 펼치던 펀잡 주지사 살만 타씨르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암살당했고 샤버즈 바티 장관 역시 그녀를 도와 신성모독법 폐지를 시도하다가 암살당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지만 2014년 10월 중순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그녀는 이 사건 때문에 6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다. 기독교인이 주는 물은 나지스(najis)이기 때문에 하람이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몰라도 보편적인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다.

할랄 식품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종사하는 무슬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될 뿐 아니라 무슬림들의 나지스 문화가 인근 지역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것은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할랄 식품단지에 비무슬림들인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도 된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는 이슬람 율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우선 단지가 조성되기까지 당분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이슬람 학자도 부인하지 않는 이슬람의 나지스 교리 때문이다.

셋째, 이슬람의 배타적 교리를 알아야 한다. 이는 비무슬림들을 카피르(kafir:불신자)로 취급한다. 카피르들은 알라의 원수요 무함마드이 원수요 무슬림들의 원

수이므로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꾸란의 가르침이다.(꾸란60:1) 이슬람권에서 카피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슬림들과 카피르 사이에는 영원한 증오가 있다.(꾸란60:4) 비무슬림들은 가장 사악한 짐승들이다.(꾸란8:55) 이슬람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이슬람을 배교하면 카피르가 되므로 죽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슬람 학자들이 인정하는 무르타드(Murtadd)교리이다. 특별히 꾸란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한다.(꾸란5:51) 그래서 유럽에서조차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무슬림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럽의 친구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종종 발생한다.

넷째,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소위 쌀라피 혹은 와하비 등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폭력과 테러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지만, 온건한 무슬림들은 타끼야(위장 교리)로 이슬람을 마치 평화의 종교인양 속이면서 거짓을 통해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한다. 온건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율법을 강요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쑤쿠크를 통한 금융자금과 할랄음식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할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을까 열려하면서 무슬림들보다 더 열심히 이슬람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차별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식물(植物)과 해물(海物)은 꾸란에 의해서 이미 할랄(꾸란5:96)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무슬림들에게 돈을 주면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흐르는 개울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섯째, 할랄 도축장 건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랄 도축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국내 무슬림들의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할랄 식자재로 1년에 소 6천 두 정도가 소비된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호주산 소고기나 양고기를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5년 7월 3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용 호주산 소고기는 평년에 18,100원 하던 것이 최근 값이 올라서 21,190원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같은 불고기용 한우는 Kg당 34,290원이다. 도저히 호주산과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값싸고 풀을 먹여 키워 육질이 부드러운 호주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할랄 도축장을 조성하여도 호주산 할랄식품 수입물량은 현재보다 줄지 않을 것이며 추가 소요분 가운데 극소량만 한우로 충당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기존의 도축시설이 남아돌아서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슬람식 도축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무슬림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무슬림들을 17억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72억 세계 인구의 23%가 넘는다. 이들 중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르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15~25% 정도로 보고 있다. 무슬림들의 주장대로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정도는 봐야 하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1%

의 무슬림들이 테러범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명의 무슬림 관광객이 올 때 최소한 1만 명의 테러범들이 포함되어 입국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9.11테러가 발생해서 평화로운 뉴욕의 출근 시간에 무고한 3천여 명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참변을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수년 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었다. 그 후 3년 뒤인 2004년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열차 테러가 발생했다. 또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7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런던 지하철 테러와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12명의 잡지사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 만화가, 경호원을 살해한 샤를리 엡도 테러 등은 평소에 평화로운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무슬림들이 벌인 테러였다. 테러범은 극소소이지만 테러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가상 테러범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는 대부분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동안 대책 없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였던 유럽에서는 무슬림자경단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기 때문에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No go zone)이 프랑스에만 750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을 85개나 허용했다고 한다. 그 결과 율법에 의해서 아내 폭력을 허용하는 무슬림 남편들의 권리가 영국에서도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무슬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허벅지와 가슴 노출이 심한 여성들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들이 유럽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무슬림 밀집지역에선 강간 사건들이 5~6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제야 정신차리고 무슬림들의 유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과격한 무슬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여덟째, 이슬람권에서 오래 살아 본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무슬림들도 이슬람 율법이 샤리아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러서 지긋지긋한 히잡을 벗어 던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맥주집으로 전전했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단골 화제다. 할랄 식당이 없어서 무슬림 여행객들이 방문을 불편해한다는 생각은 망상일 뿐이다. 꾸란에도 필요해서 금지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나 모르고 먹었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다.(꾸란6:145)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의 기도처나 할랄 음식을 강조하는 무슬림들은 원리주의 무슬림일 가능성이 높다.

아홉째, 할랄 인증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테러범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머니지하드 사이트는 미국의 할랄 인증업체 IFANCA가 2007~8년에 수백만 불을 하마스에 지원한 기관으로 지목된 북미 이슬람협회(ISNA) 및 세계 무슬림 연맹과 연계된 사실이 있으며 ISNA는 파키스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 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할랄 인증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열째, 정부가 할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특혜이며 직원 채용할 때 종교차별을 합법화해 주는 행위다. 2015년 4월 10일자 주간무슬림1224호에 의하면 (재)한국이슬람교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월급 175만원, 상여금 550%, 출퇴근버스운행, 사택 제공, 중식제공, 4대보험 제공,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근무할 50세 미만의 한국 무슬림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채용공고를 할 때 특정 종교를 명시해서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다. 그러나 할랄 요원을 뽑는다면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부가 할랄 산업을 장려한다면 무슬림만 채용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격이 된다.

열한번째, 우리가 할랄 식품이나 할랄 도축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할랄 식장들을 홍보해 준다든지, 정부 주최로 할랄 세미나 혹은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개인이나 회사가 할랄 인증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아무리 위생적이고 첨단과학을 동원한 도축이라도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다비하 방식으로 두측하지 않았다면 할랄이 될 수 없다. 다비하 방식이란 위생이나 청결, 건강과는 무관하다. 이들의 도축은 도축자가 무슬림이어야 하며, 도축 시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쳐야 한다. 또 죽을 때 짐승의 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야 하고, 목의 식도와 기도, 동맥, 정맥을 단칼에 잘라야 한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들아 피를 제거해야 하며, 무통 도축을 위해서 미리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키다가 죽으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할랄은 순수하게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문제이며 이것이 마치 웰빙 식품으로 위생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안전한 먹거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피가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동물이 2~5분동안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체내에서 독성이 생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도 벌금형으로 금하고 있는 잔인한 도축의식으로 마련된 할랄 식품을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무슬림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부추기는 일에는 절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랄 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던 손해를 보던 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신도의 중요성

최근까지 나는 교회의 책임은 목사라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아주 달라진 것은 아니나 사도행전을 읽으며 성경의 관점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평신도의 중요성이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초기 복음을 가르쳤는가? 아나니아였다. 일개 평신도 아나니아.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출했다. 12사도도 아닌 집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늘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 사도도 아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도성 전체에 기쁨을 주었다. 또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영적으로 도움으로 검은 대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두가 평신도들이다. 이제는 평신도의 시대이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나라를 이뤄갈 때이다.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갑(甲)아닌 값있게 사세요.
내 나이가, 내 직분이,
내 지위가 뭐 인줄 알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은 목사님을 피곤케하고 여러 성도들을 시험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시 18:27)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 작가 김복동

Caravaggio / 1600-1601 / oil on canvas / 산타마리아 델 보폴로 미술관소장

예수의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목도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절박한 공포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간적인 사람이었음을 카라바조는 표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건 이후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



2014-10 / 248.3×147.5cm / oil on canvas & wood

어 거꾸로 매달리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의 여정은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결국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그 분께 주인 된 권한을 맡기는 것, 미생을 완생으로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작가노트 중)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갈릴리교회

갈릴리의 희망을 노래하다

최영조 목사는 춘천성시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다. 날카로운 펜대로 기독교계의 흐름과 세상의 정론을 분석하고 추구하는 갈릴리 교회 최 목사. 맹목적인 비판만이 아니라 늘 따뜻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학생선교회 시절에 만난 조미경 사모가 그의 중요한 동역자이다. 최근 교회를 새롭게 신축한 이야기와 함께 아담하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하게 된 이야기, 갈릴리의 희망을 함께 들어보자.



최영조 담임목사

바쁘신 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교회를 직접 개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척의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우두교회가 6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되어 개척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진 우두지역이 최종 대상지로 축약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우범지대였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근이 고물상 자리였는데, 땅을 빌려 조립식으로 30평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주위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심지어 반상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연판장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주민들의 상황과 필요를 살피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경로당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정보들이 지금의 갈릴리교회 설립목적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상처받은 분들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어려움



갈릴리감리교회
예배당봉헌예배

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되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을 위한 미용봉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지역의 노인 분들과 어린이들의 이 미용, 점심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방치된 아동을 집에 데려다가 숙제를 지도해주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녁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 크게 확대되어 지역아동센터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을 오래도록 지속해 오셨군요. 최근에는 보다 규모 있는 사역을 위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교회 건축을 회피해 오던 사람입니다. 교회역사를 생각한다면 진작 건축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관이 필요할 때는 저희 주택을 내주었고, 양육실과 식당이 필요할 때는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필요한 공간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여러 상황이 교회를 다시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작년 말부터 교우들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축이라면 기쁨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즐겁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축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짧은 탓에 교회 통장의 잔고는 늘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 비워짐은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부족함을 인위적으로 채워보려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담을 주면 시험이 들어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니 교우들은 분에 넘치게 헌금도 하고 신앙도 훨씬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와 교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소식을 듣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고, 또 이웃 교회의 장로님들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의 후유증을 이야기 하는 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갈릴리교회는 어느 교우 한 사람도 시험에 든 사람이 없이 오히려 건축 중에 몇 가정이 새로 출석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물론 빠듯한 예산 안에서 건축하려고 하니,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우들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 부치고 땅을 파고, 짐을 옮기고, 페인트를 칠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물고 무더워서 건축현장에서 많은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외부 계단의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계단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되었고, 이 일로 여선교회가 동원되어 펌프카를 대신하여 양동이로 시멘트를 날라 무너진 계단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아줌마 파워(?)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된 때는 노령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노부부께서 생활비 전체를 헌금하셨을 때였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게 없어 안타깝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교회신축을 계기로 일취월장으로 주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모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보내진 교회로서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몸으로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하겠지만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아동 돌봄 사역과 미용봉사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성경 몇 구절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방'이란 작은 소그룹 교회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앞으로 갈릴리교회는 제2의 역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확신을 가진 주님의 전도제자가 되도록 전도훈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너무 순하고 수줍어 올 때를 기다리고, 믿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적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춘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교회 공간을 오픈하여 지역의 기독교문화 사역과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성시화 사역에 드려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베드로병원을 오픈하면서

베드로정형외과 원장이셨던 조은제목사님과 새로 개원한 베드로병원의 원장이신 기정희사모님 부부를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정형외과를 내려놓고 일본 선교를 다녀온 후, 베드로선교센타와 시니어선교사역등 선교사역에 전력하시다가 병원개업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춘천의 귀한 보배이신 두 분을 뵙는 날, 베드로병원 앞마당에서 올려다 본 확 트인 가을하늘에 비늘구름이 멋진 장관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사역에 아름다운 장관들이 펼쳐질 것을 맘껏 기대해봅니다.



조은제 선교사 기정희 선교사

베드로 병원을 다시 오픈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난 10년 동안을 돌아보면 20년 가까이 하던 병원 사역을 내려놓고 8년 동안은 일본선교사로 다녀왔고, 국내에서 보내는 2~3년 기간 동안은 다양한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경험과 시간이 넉넉한 시니어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시니

어선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병원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중요한 목회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독병원일지라도 이들을 제대로 치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정신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회복시키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이 근접 목회를 하는 것이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동안 목회는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교회(신성균 목사시무)에서 담임목사님이 잠시 쉬시는 동안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섬겼습니다. 은혜가 되고 참 좋기는 한데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제가 꾀(?)를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하면서 진료도 하고, 경영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는 것이 근접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권적인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오픈한 베드로병원은 어떤 종류의 병원인가요?

제가 2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제직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기정희선교사도 15년 동안이나 당시 도립병원(지금의 강원대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5년간은 부부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는 베드로정형외과가 중심이었고, 기정희선교사는 정신과 외래로만 보곤 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픈한 베드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신과와 관련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조울증도 정신질환으로 인구의 0.5%나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성(性) 중독,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서 교회에서나, 병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신의학적인 면에서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부분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쪽을 구비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동안 의사로서, 목회자요 선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에 더 이상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자 베드로병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 자녀들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계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저희 병원은 전문의가 2명이 있어서 병원입니다. 아내인 기정희의사와 다른 한분은 오홍근의사선생님이십니다. 오홍근의사선생님은 세계인명사전에도 나올 만큼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전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대학교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희대학교 의대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오홍근의사선생님이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부부를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홍근의사선생님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가 된 병상은 95개이고, 직원도 20명이나 됩니다. 병원이 크진 않지만 잘 운영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기독교적 치료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치료가 이뤄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접목을 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 소그룹을 통해서 목회적 접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가 두 명이나 있으니 훨씬 환자들의 정신적, 목회적 필요에 따라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사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사면 의사, 선교사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이 두 개가 융합되어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섬기는 것이 목회라고 여겨집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론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에 저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병원을 오픈하게 되면 선교센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1-2층만 병원으로 사용합니다. 3-5층은 계속 선교센터로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연합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선교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 아이들이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들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결실이 이제 베드로병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산

함석헌(1901-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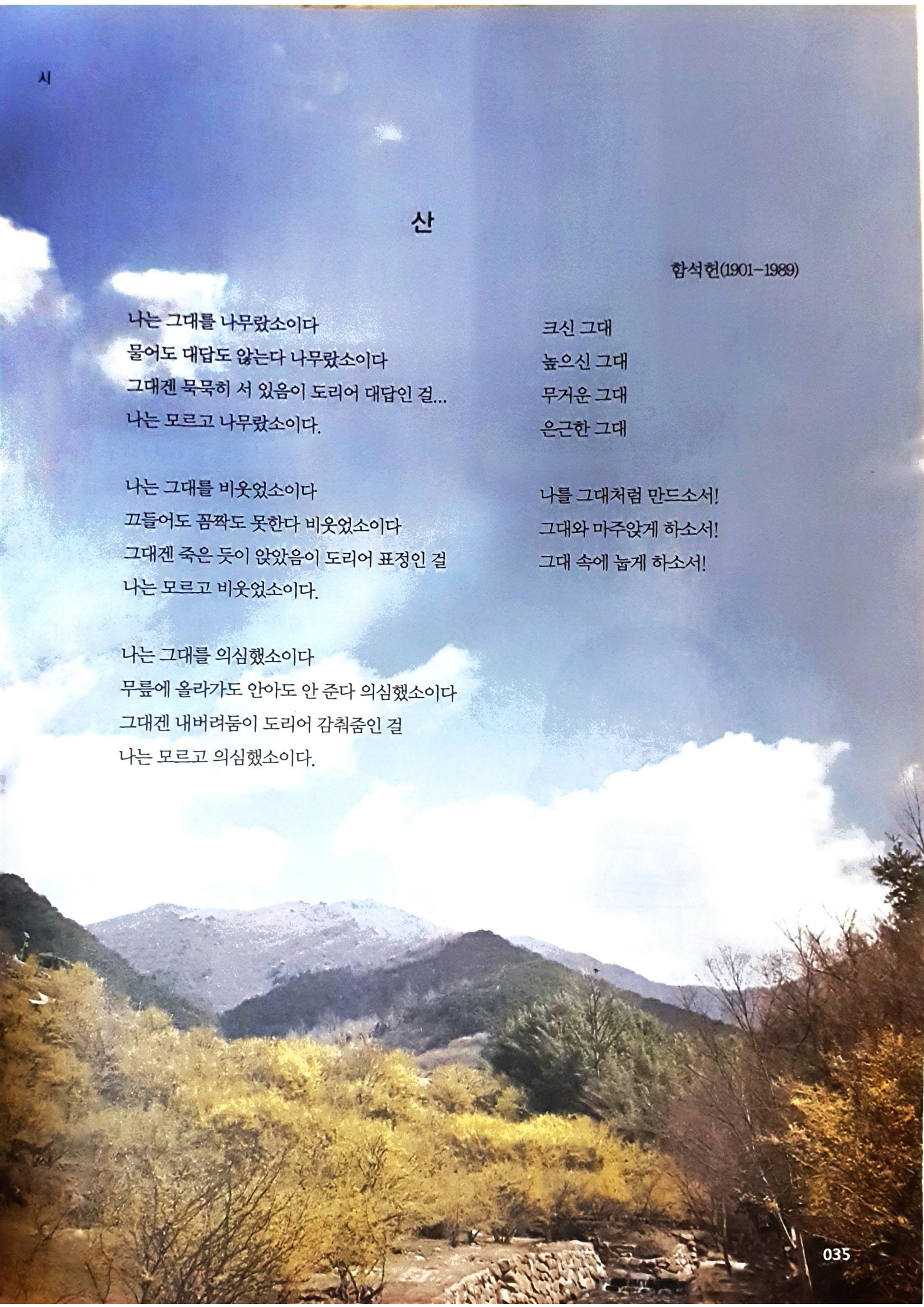
나는 그대를 나무랐소이다
물어도 대답도 않는다 나무랐소이다
그대겐 묵묵히 서 있음이 도리어 대답인 걸...
나는 모르고 나무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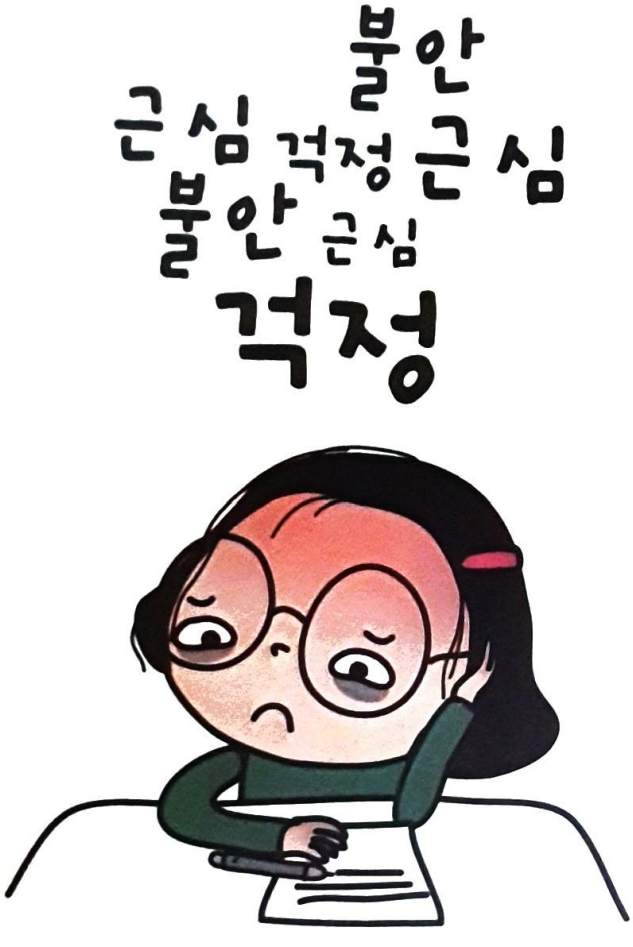
나는 그대를 비웃었소이다
끄들어도 꼼짝도 못한다 비웃었소이다
그대겐 죽은 듯이 앉았음이 도리어 표정인 걸
나는 모르고 비웃었소이다.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이다
무릎에 올라가도 안아도 안 준다 의심했소이다
그대겐 내버려둠이 도리어 감춰줌인 걸
나는 모르고 의심했소이다.

크신 그대
높으신 그대
무거운 그대
은근한 그대

나를 그대처럼 만드소서!
그대와 마주앉게 하소서!
그대 속에 눕게 하소서!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병입니다

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이종성 집사

불안은 인생의 과정에서 많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적응적인 현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강력할 수도 있고 아주 약할 수도 있다. 본래의 무서운 대상보다 그에 대치된 다른 대상에 대하여 불안해 질 수도 있다. 존재론적 불확실성의 한 측면일 수도 있고 신경증적 증상의 일부일 수도 있다.

김양은 23세로 가끔씩 심한 불안이 나타나 내원하였다. 그녀는 한 달에 몇 번 침대에 누워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죽음에 관하여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 23살이다. 7년만 있으면 30살이 되고 아이들은 커 버릴 것이다. 다음에는 할머니가 될 것이고 은퇴를 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건강히 잘 살고 있는 부모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서 불안은 심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한 신체증

상을 동반하여 지속되는 상태이다.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동성 불안 및 자율신경과민증상이 특징이다. 20대에 호발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다. 가족적으로 발병하는 경향을 보이고 환자의 1/3정도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으며 대부분 신체증상 치료를 위해 일반의,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를 찾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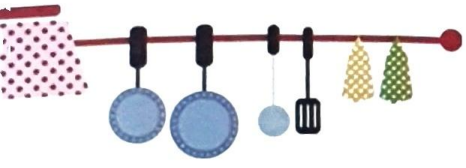
이런 환자들은 불안감과 운동성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 주된 양상이다. 피로, 근육통, 안검경련과 이마 찌푸림 등이 있고 안절부절 못하며 잘 놀라는 증상이 있다. 자율신경계 기능 항진으로 인한 신체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 즉 발한, 가슴 두근거림, 빈맥,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움, 입마름, 얼굴이나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움, 설사, 구토감, 위장 불쾌감, 목구멍 부위의 이물감, 과호흡 등을 보이며,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한다. 심장 증상과 호흡기 증상은 공황장애 때보다는 덜 심하나 지나친 근심으로 매사를 걱정하여 불안해한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다. 우유부단하며 사소한 일도 지나치게 염려한다. 그 결과 주의산만, 집중곤란, 초조감, 불면증 등이 오고 우울도 흔히 동반된다.

이 질환은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적 장애이다. 합병증으로 25%에서 공황장애로 발전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나중에 동반되기도 한단. 불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수가 결국 직업능률을 상실하고, 결혼생활의 불만을 보인다고 한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신체질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선 신체 질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약물치료는 만성장애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신치료는 동기가 강한 환자에게 좋은 치료이고 약물치료와 병행 할 수 있다.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 조절 못하는 과도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병으로 인지하고 치료적 도움을 받아 회복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더욱 활력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한 신체증상을 동반하여 지속되는 상태이다."





순서를 알면 주변이 깨끗해진다 (1)

필자는 요리를 너무 좋아한다. 사범대학졸업 후 교직(미술)보다는 요리사가 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로 오래 봉사하다 보니 요리보단, 미술교사보단 천사같은 유아들을 더 사랑했기에 지금의 유치원 원장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요리에 대한 한(?)을 풀고자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실습을 동네방네 떠든 결과 '요리하는 남자' 란 타이틀로 신문 잡지는 물론 공중파 3개방송사 모두 소개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느 출판사로부터 '앞치마를 두른 아빠' 란 책을 출간하자는 제의도 있었다. 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내가 출연한 TV방송을 보고 멀리 영국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유학생이 자기의 졸업논문으로 두 달간 한국에 머물며 나를 리서치 한 것이다. (학위논문: An investigation of effective curriculum in early years gender education)

이후 깻잎인지 콩잎인지도 모르는 예쁜 꽃사슴 같은 숙녀를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지극정성을 다해 돈까스, 탕수육, 열무김치 등을 바쳐서 결혼에 까지 이르렀고 결혼 생활 20년째인 지금도 매일 아침 밥상을 바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허구한 날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밥상을 차리다 보니 아주 가끔씩은 내가 뭔 팔자인가 하는 마음에 힘이 겨워 케이블 tv '나는 자연인이다' 밥상처럼 찌개하나에 김치 혹은 사료(시리얼)와 비누조각(치즈)으로 대충대충 밥상을 차린 경우도 허다했다. 이렇게 지내던 중 혼자사시는 장모님, 예전에 1,000일 새벽 재단



을 쌓았던 장모님! 부부싸움을 해도 사위인 내 편을 들어주시던 나의 커다란 버팀목이셨던 장모님이 치매가 발병되어 그 솜씨 좋으시던 음식도 못하시고 목욕도 제대로 하실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요리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요리는 주재료가 거의 다 고기인 만큼 어르신 분들이 자주 드시기엔 뭔가 부족함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장모님의 치매가 더 악화되기 전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한식을 배우고자 지난 7월 중순 춘천에서 제일 좋은 요리학원이라고 생각되는, 이름 그대로 이곳 제일요리학원(후평동 소재) 한식조리 기능사반에 등록을 했다.

요리학원 첫날! 종갓집 참한 막내며느리 같은 원장님과 큰 누님 같은 요리지도선생님의 지도 아래 첫날 과제로 북어구이와 칼국수를 만들었다. 사실 요리학원을 등록하면서 은근히 내 요리 실력에 대한 자만심 아니 교만함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같은 마음은 수업 첫날부터 깨졌으니 마치 교회직분이 권사인 내가 성경퀴즈대회 결승전에서 주일학교 학생한테 패한 그런 느낌이랄까? 내 조리방법이 한식조리에 통할 리가 만무였다. 하여간 하나님은 내게 겸손함을 깨우쳐주셨다.

한식조리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시각적으로 맛을 내는 요리이며 자격증 시험때는 정해진 짧은 시간에 음식의 치수와 재단 및 개수까지도 정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시험에 실격된다. (이 같은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정확히 살지 않으면 천국시민권 자격시험에 실격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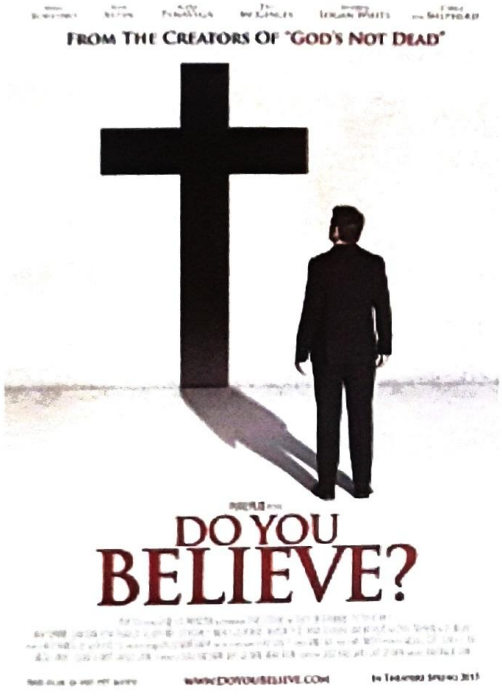
요리학원 첫날 주어진 과제에 대한 평가시간에 요리지도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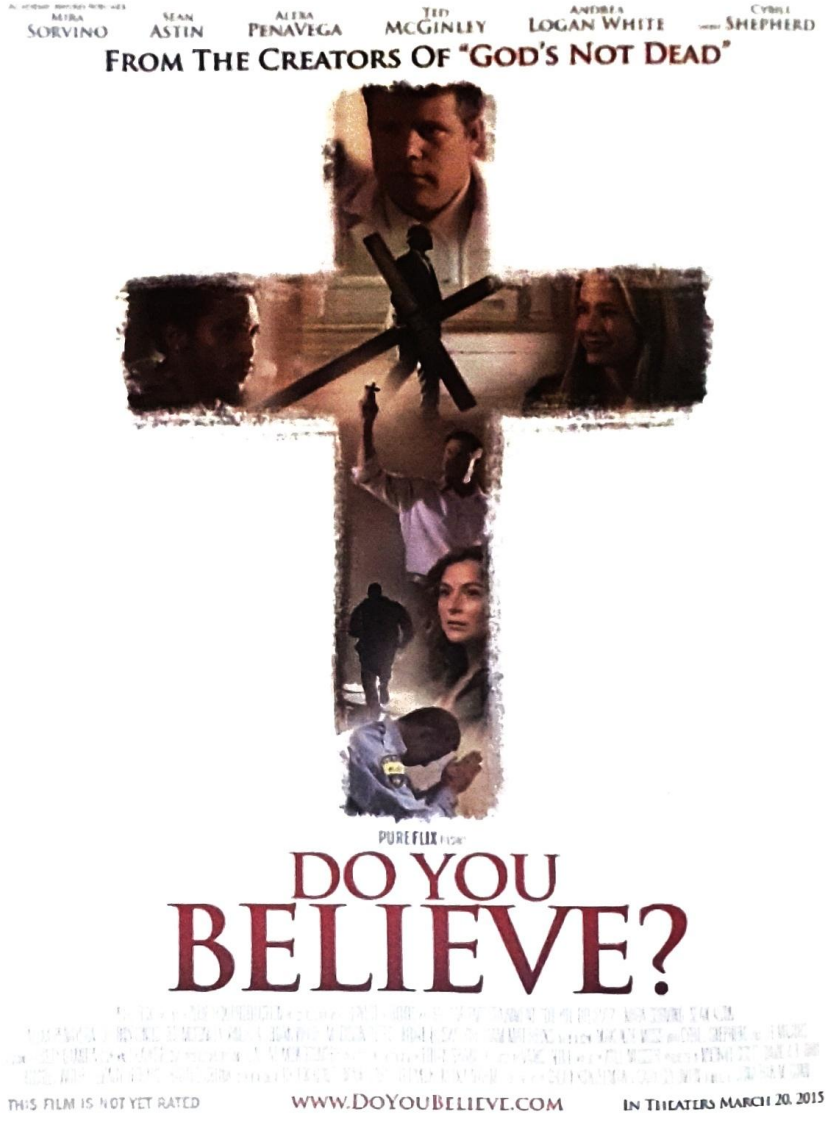
'음식 조리 순서를 정확히 알면 맛도 좋고 주변도 깨끗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요리는 조리순서가 정확해야 맛도 있고 도마 주변이 어수선하거나 더렵혀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의 잡스런 입맛을 위해 온갖 재료와 조리법을 동원해 요상한 맛의 아주 예쁜 모양으로 조리한 음식을 걸핏하면 퓨전요리라 갖다 붙이고 값도 비싸게 받는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경말씀을 사람의 욕심대로 여기저기 뜯어다 붙여놓고 그것이 진리인양 떠벌리며 사람을 유혹하고 이에 미혹당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이비라 부른다.)

다음호에 계속...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두 유 빌리브?
DO YOU BELIEVE?

할렐루야~!

필자가 성시신문에 영화소개를 시작 이후 약 8년여 만에 대망의 100회를 달성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으니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필자는 다달이 감당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았다. 말하자면 그달에 소개할 마땅한 영화가 나오지 않아 난감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한 소재의 작품들을 보내주시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가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올해 3월에 개봉되어 전미박스오피스 6위에까지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선전을 하기도 한 이 영화는 이 지면에 소개된 많은 기독영화들의 진수들만 골라서 조립하고 배합하여 만든 것 같았다!

영화는 12가지 서로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의 사건을 향해 달려오면서 은혜로운 대단원으로 마감되는 형식인데 바로 성경의 12지파, 12제자....등 그대로 성경적인 상징성을 유지하며 전개되는 드라마이다.

이미 수차례 상영의뢰가 성시본부로 들어오기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갓즈 낫 데드 God's not dead〉의 원작자 척 콘젤만(Chuck Konzelman)이 쓰고 같은 제작사 퓨어 플릭스가 새로이 내놓은 작품인데 훨씬 드라마라인이 잘 살아 긴장감과 영화적 재미도 살짝 들어있다.

수많은 걸작에 출연하는 헐리우드 명배우 미라 소르비노를 비롯하여 추억의 TV외화 '600만 달러의 사



나이' 리 메이저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호빗족으로 인상적인 배우 숀 오스틴, 미국드라마 〈빌리브〉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유명 흑인배우 델로이 린도 등 좋은 캐스팅으로 한층 풍부한 느낌의 당 영화는 아마도 예배 때 특별 순서로 상영하여 함께 감상하며 은혜를 나눌만한 영화가 아닌가 한다.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를 다시 한 번 묵상할 기회가 되는 이 영화의 등장은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이 영화의 번역자막을 만든 어느 네티즌의 고마운 배려로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음에 더욱 남다른 감사함을 느낀다. 애석하게도 배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얻은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잠시 고마움을 전해 드리며 속히 다른 이들의 번역자막파일이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이 공유하게 될 것을 기도한다.

감독은 조나단 M. 건 / 러닝타임 115분

김춘배 기자 / beller@hanmail.net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 월~금 (주1회) 9:00-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식당보조 및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인원 : 00명 · 장소 : 일정 및 시간 협의 가능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한나, 이의경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제29회 청소년 희망날개 장학금 마련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연합찬양축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중,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교회 성가대 및 찬양대가 참여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6시~9시

·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강사 : 김상민 간사(전 제주열방SBS학교장,현 SBS센터 간사)

· 대상 : 춘천지역주민 누구나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이의경 사회복지사)

③ 사랑으로 말기암 환우를 돌보는 제1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 11월 17일(화) 매주 화요일(5주간) (오후1:00 - 오후5:00)

· 대상 : 봉사를 원하시거나 관심있는 분

· 접수 : 전화 사전접수 (당일 현장 접수가능)

· 주제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8-39절)"

· 장소 : 소양제일교회 (퇴계동 중앙하이츠3차 옆) · 교육비 : 3만원 (교재 다과비 포함)

☎ 033-263-5454 / 010-9859-3434 (춘천호스피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새 생명실고 '성시화 비행기' 이륙하다! — "성시화 비행기 새 생명축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6월22일 광역시도 대표회장 모임에서,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과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성시화 비행기 새 생명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성시화운동의 '비전' '행함' '기도'의 앞 자를 딴 "비행기"에 새 생명을 붙여 만든 성시화운동으로 이 [비행기 새 생명 성회]는 특히 2~3개 도시 또는 한 개 도시에서 2~3개 교회가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저녁에는 태신자 작정과 초청을 통한 전도집회로 진행하며, 낮에는 전도훈련과 실천, 기도특강, 성시화특강, 목회자를 위한 특강 등으로 진행한다.

저녁집회 강사는 총재(김인중 목사) 등 성시화운동지도자들이 팀을 이루어 맡기로 하고, 부흥사인 장경동 목사(대전중문침례교회)도 강사로 참여한다. 낮 시간 강사로는 해당분야 전문가 (목사, 장로, 권사, 등)들이 담당한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각 지역성시화운동본부로부터 성회일정을 접수하여 주 강사와의 시간조정 등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성회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사역은 지역성시화운동본부의 요청이 있는한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춘천지역 교회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이병철 목사/2010-6254-3162)에, 도내 다른지역 교회는 강원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김영명 장로/010-8792-5775)로, 다른 광역 시.도, 시.군의 교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김철영 목사/010-5387-575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 일본의 무목교회 '멘토' 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지난 9월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일본 '바나바 복음 선교회'와 선교협약을 맺고, 일본의 8,000여 교회 중 1,000여 곳의 무목교회에, 10월부터 전도 및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16개 광역 시.도 교회와 일본 무목교회와의 1대1 결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고 있으며, 그 제1호 '멘토교회'로 인천시 논현주안장로교회(유헌형 목사)가 참여하기로 하고 10월 중 일본교회 목회자를 만나 협력사역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일본교회의 한곡교회 체험방문과 한국기독교역사 탐방을 주선하는 등, 일본 바나바 복음 선교회와 협력, 일본의 각 도시로 성시화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국내 교회에 이 사역을 널리 알리어 많은 교회가 '멘토교회'로 희망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광역 시.도, 시. 군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의처: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2015베를린국제성시화 대회"— 유럽에 성시화와 통일의 성화를 높이들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와 통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2015베를린국제성시화 대회를 한국, 미국, 유럽 등 15개 국가에서 100여명의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개최했다.

세계성시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10월 유럽지역 6개국(영국,프랑스,네델란드,독일,스위스,이탈리아)을 순회하며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6개나라 9개도시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교회와 적극 협력해, 유럽 교회의 영적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일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서울국제성시화대회에서, 세계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는 캐나다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현수 목사/ 캐나다 토론토 큰빛장로교회 담임)에서 "2015토론토 국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임현수 목사께서 금년 1월 말경 북한에 억류되면서 유럽성시화운동본부(상임회장 김현배 목사/베를린 비전교회 담임)에서"2015베를린 국제성시화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해 왔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통일 코리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2014베를린 성시화 컨퍼런스]를 개최해, 통독과정을 경험했던 현지인 목회자와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통일포럼을 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훈을 얻은바 있으며, 성시화 3전운동과 예수사랑 섬김의 실천운동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 바 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이자 전 세계 영적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유럽은, 기독교인 감소로 인한 교회당이 이슬람 사원과 술집, 공장으로 매각되는 등 영적으로 큰 위기가운데 이번 베를린대회는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유럽지역의 교회당을 복원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이번 대회를 주관해온 김현배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40여 유럽국가에서 성시화운동의 비전과 전략이 공유되고 확산되어 유럽교회마다 강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 유럽 교회가 종교개혁의 발상지답게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2015 성시지도자 컨퍼런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오는 11월 13일 12시~14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동산수련원에서 "2015 성시지도자 컨퍼런스"를 열어 성시화운동의 주 사역인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유권자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광역 시.도, 지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연합회, 기독교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후보자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이를 교회와 언론에 공표하기로 하는 등 시.도, 지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 / kym_5771@naver.com

9월 이야기

성시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목회자모임

성시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9월 9일(수) 정오에 있었다.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철사무총장의 인도로 2015 성시선교대회 개최 취지 및 행사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춘천 전 교회와 크리스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감리교회 쌀 나누기 행사



신성감리교회(박상칠목사)는 9월 20일(주일) 오전11시 추석을 맞아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예배와 전달식을 열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헌금으로 마련한 쌀10kg 700여 포대를 춘천시(최동용시장)에 전달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작년부터 가졌는데, 동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가정과 탈북민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성시선교대회 준비기도회

성시선교대회(10월4~10일)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연휴제외) 대회장소인 안디옥교회(유진형목사) 소강당에서 오전6시30분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기도시간을 갖었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모든 세대들에게 말세에 부으시리라고 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으시는 대회가 되기를, 강사진들과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9월 21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통일한국,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회개하라! 거룩한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합심기도로 도고하였다.

※ 광고 및 취재 문의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반대 집회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반대 집회가 9월 9일(수) 오후1시30분부터 도청 앞 광장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인 건사연주관으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와 춘천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와 성도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강원도학교구성원의인권에관한조례안 반대 성명서발표와 반대시위가 있었다. 이날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도청 앞 광장에서 반대 피켓집회가 있었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반대서명자료도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부 안건 중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상정 사유는 "제출된 조례안이 학부모 단체의 계속적인 반대 시위, 공청회 무산, 한국교원총연합회의 반대 등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현행 학교단위 학칙과 각종 인권에 관한 법령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권 조례안 제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숙려의 시간과 학교 내의 갈등과 분열 조장의 우려가 있는 쟁점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미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종합적 검토의 시간을 갖고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표했다.

순복음춘천교회 군부대에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는 21사단 백두산 부대를 찾아 사랑의 독서 카페를 기증했다.

사랑의 독서카페는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진행하는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병영내 독서문화 확산과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운영된다. 순복음춘천교회가 지원한 독서카페는 27m2 크기로, 1000여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와 탁자, 의자, 벽걸이형 냉난방기, 조명, CD플레이어가 갖춰져 있으며 14명의 장병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1사단장 김혁수 소장은 "독서카페를 통해 좋은 환경에서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 사고 예방은 물론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 사티 ERIK SATIE (1866– 1925) 짐노페디 제1번 GYMNOPEDI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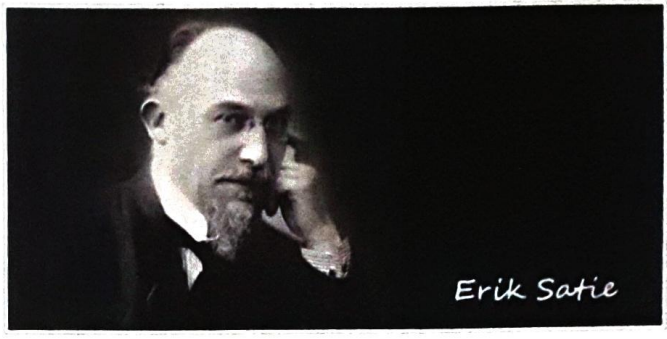
제법 가까운 동산에서 물들어가는 고운 나뭇잎들과 들판의 노랗게 변해가는 고개 숙인 벼들과 커다란 코스모스로 인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들며 책을 펴드니, 귓전을 속삭이는 풀벌레 소리들과 함께 문득 어디선가 나즈막하게 들려오는 피아노의 음률은 사티의 그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동 시대 다른 유명한 작곡가들 – 드뷔시나, 라벨의 작품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그의 음악이 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그 당시 유럽 특히 독일의 거장들처럼 무겁거나 철학적이기도 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다가 그의 피아노를 듣노라면 왠지 마음의 평안해지며 포근한 솜털이불을 깔고 화로 앞에서 따스한 불을 쬐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옹플뢰르(HONFLEUR)에서 선박 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 자라다가 13세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으나 성적이 나빠서 제적당하게 된다. 그 후에 몽마르트 언덕에 방을 얻고 그 당시 예술가들이 자주 모였던 카페 〈르 샤노아르 LE CHAT NOIR, 검은 고양이〉에서 피아노도 치며 알바하면서 자기만의 음악을 키워갔다. 그러나 엄한 교양과 교육을 자랑하는 당시의 클래식 음악 세계에서 샹송과 거리의 음악도 작곡하는 그를 무시하며, 그의 음악을 전위음악이라고 불렀다. 그는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 살았는지 모른다. 비록 무명의 삶으로 가난을 지고 살았지만 생계를 위한 음악과 함께 여러 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도



주고 받았을 것이다. 드뷔시에게서 때때로 사티의 평온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는 후에 유명한 시인이며 감독인 장 콕토나 거장 피카소 같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음악 중에 대표곡인 〈세 개의 짐노페디〉, 〈여섯 개의 그노센느GNOSSIENNE〉, 〈 다섯 개의 녹턴 NOCTURNE〉과 소품들이 남아있는데 불란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 (PASCAL ROGE)의 연주로 감상하신다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조용히 눈감고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혹시 너무 편해서 잠이 들지도 모르니 요주의!) 우리 민족의 대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시월의 행사들도 즐비한데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세요…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든 들판처럼 드높고 풍성한 가을을 가슴 가득 누리시기 소원하며,…

다니와 함께 하셨던 만천리에서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샬롬!

김금찬 선교사 (JDM)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베드로병원

CHUNCHEON PETER'S HOSPITAL



베드로선교센터 이사장 조은제



병원장 기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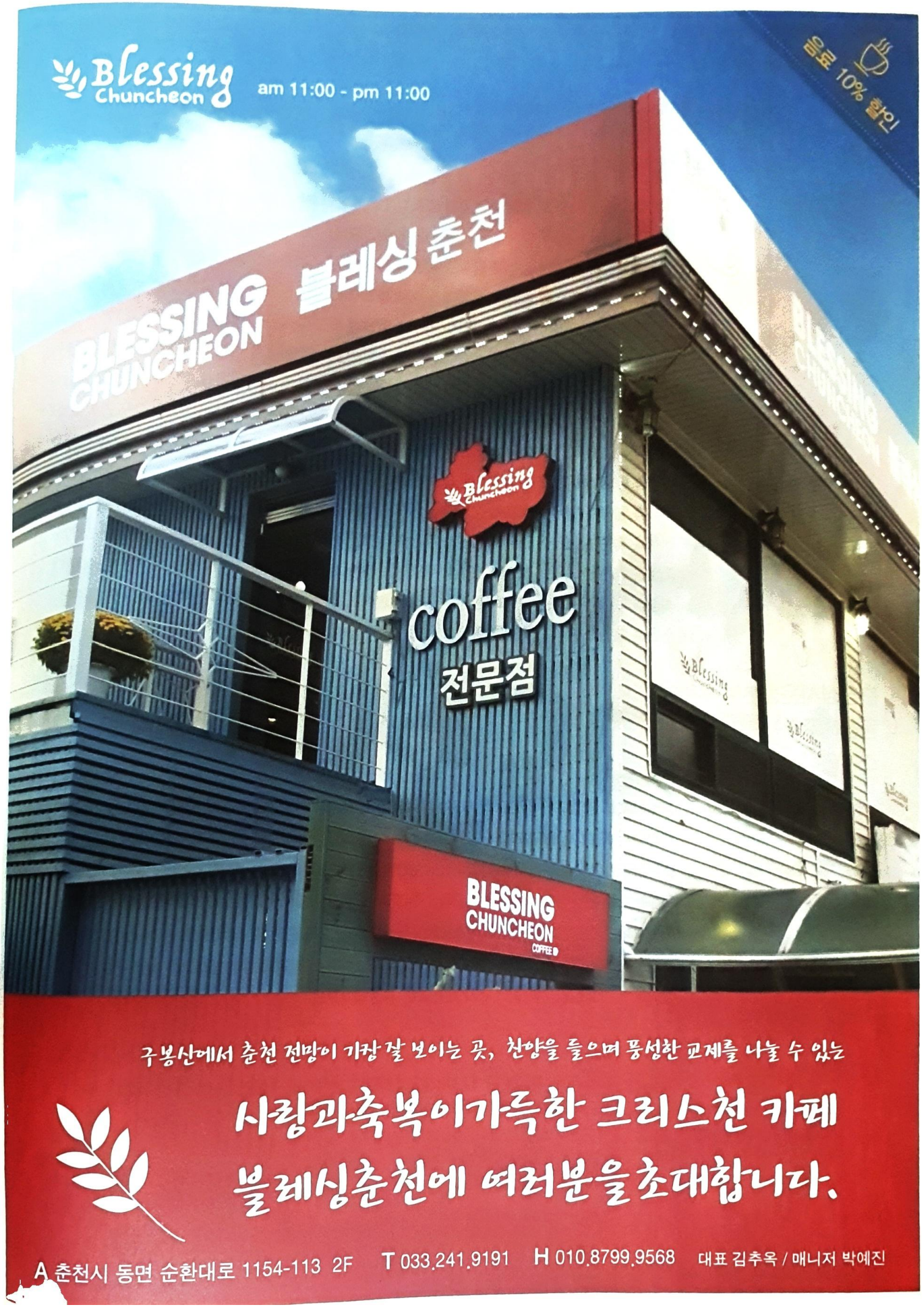
부원장/원목 오홍근

저희 베드로병원은 기독교선교정신을 바탕으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병원으로서 지.정.의가 통합된 참된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료분야〉 불안장애(공황장애, 공포증 등), 우울증, 수면장애 기분장애(조울증 등), 조현병(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성중독, 게임중독, 치매, 노인성우울증, 기타 신경성 · 기능성 장애

☎ 입원 상담 033.255.0085 | 원무팀장 070.7708.0937

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70 (효자동 312-1) 033.255.0086 bdr270@naver.com


Blessing Chuncheon
am 11:00 - pm 11:00
음료 10% 할인
BLESSING CHUNCHEON 블레싱 춘천
Blessing Chuncheon
coffee
전문점
BLESSING CHUNCHEON COFFEE
구봉산에서 춘천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곳, 찬양을 들으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과축복이가득한 크리스천 카페
블레싱춘천에 여러분을초대합니다.
A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113 2F
T 033.241.9191
H 010.8799.9568
대표 김추옥 / 매니저 박예진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기태 김남훈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범찬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옥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표복순 탁광희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 봉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춘천YWCA
월드비전 아가갤러리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43주년

2015

춘천성시 선교대회

2015. 10. 4주일 - 10토

안디옥교회(유진형목사)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홀리클럽

협력기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춘천교경협의회, 춘천장로연합회, 춘천감리교동부연회, 춘천장로교연합회, 춘천성결교연합회, 춘천침례교연합회, 춘천순복음연합회, 춘천그리스도연합회, 춘천구세군연합회, 춘천직장선교협의회, CCC, JDM, [illegible]전도단, IVF, GBT, DFC, ESF, 인터콥, 베드로선교센타,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강원군선교회, 춘천가[illegible]회, 강원CBS,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춘천YWCA, 춘천YMCA, 월드비전, 남부사회복지관, 예스컴, 어린이[illegible]

